

# 張緯恒의 雲浦九曲 園林과 雲浦九曲詩

金 文 基\*

## Ⅰ 차례 Ⅰ

- I. 머리말
- II. 張緯恒의 儒家的 삶과 雲浦九曲의 경영
- III. 雲浦九曲의 특징과 九曲詩의 세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張緯恒(1678~1747)이 지은 雲浦九曲詩와 茂島七曲詩가 臥隱先生文集에 실려 있음을 발견하고 여가를 내지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지난 4월에 학술조사를 실시, 운포구곡 원림과 무도칠곡 원림의 위치를 고증하게 되었다.

그는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운포구곡 설정의 기준과 방법을 밝히고 운포구곡의 특징이 폭포가 없으므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고 물결을 따라 내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1곡부터 제 9곡까지 거슬러 오르면서 九曲詩를 읊었고, <覆次>라 하여 極處에서 물결을 따라 내려오면서 구곡시를 읊기도 하였다. 두 편의 운포구곡시는 곡의 차례만 뒤바뀌었을 뿐, 곡명과 곡의 위치는 동일하였으며 노래의 시상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는 구곡 주위에 亭子와 齋室을 짓고 그 명칭도 주자의 名堂實記에서 취하였으며 구곡과 칠곡을 경영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자의 삶을 계승코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가 사는 곳에 제5곡을 설정하는 등 구곡의 설정 방법과 범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편의 구곡시와 1편의 칠곡시를 창작한 것으로 볼 때, 장위한은 무이구곡과 무이구곡도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를 바탕으로 주자의 삶을 본받아 유학의 도를 실천궁행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위항은 벼슬을 그만 둔 후에 내성천 위에 운포구곡 園林과 무도칠곡 원림을 설정하고 3가지의 구곡시의 창작을 통하여 주자와 같은 유학자의 삶을 영위하고자 했는데 특히 운포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지은 운포구곡시에서는 세속과 단절된 운포구곡의 淸淨 空間에서 자연에 귀의하여 道를 체득하고자 하는 뜻을 각 굽이의 경치를 보고 托興寓意하였다.

#### 주제어

와은, 장위항, 운포구곡, 운포구곡시, 무도칠곡시, 주자, 무이구곡, 무이구곡도가, 내성천, 수도리

## I. 머리말

조선조에서는 採芝堂 朴龜元(1442-1506)이 밀양에 古射九曲 園林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古射九曲詩를 창작한 것을 시초로 하여 逍遙堂 朴河淡(1479-1560)이 이어서 운문구곡 원림을 경영하면서 운문구곡가를 짓게 되었다.<sup>1)</sup> 이후 경북 안동, 문경,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명구승지에 구곡원림이 많이 설정되고 구곡시가 창작되어 18세기를 전후해서는 ‘九曲文化’라는 하나의 큰 문화적 흐름이 형성되었다.

영주지역에는 竹溪九曲을 비롯하여 東溪九曲, 小白山九曲, 草庵九曲, 草溪九曲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근래에 張緯恒이 지은 雲浦九曲詩와 茂島七曲詩가 臥隱先生文集에 실려 있음<sup>2)</sup>을 알게 되었다. 여가를 내지 못

1)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2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243쪽

2)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并小序〉〈覆次〉〈愚川之下 亦有七曲 仍用武夷七詠은 以記之〉

하여 운포구곡과 무도칠곡에 대한 조사를 미루어 오다가 지난 4월에 학술조사를 실시, 운포구곡 원림과 무도칠곡 원림의 위치를 고증하게 되었다. 마침 운포구곡시의 서문에 구곡 설정의 원리와 배치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포구곡시와 무도칠곡시의 협주에 각 곡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곡의 위치 고증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조사 결과,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어 지금은 운포구곡 제 5곡이 멸실되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옛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댐이 완공되어 만수가 되면 운포구곡 원림은 거의 물에 잠기게 될 것으로 보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장위항의 유가적 삶과 운포구곡 설정 및 경영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운포구곡의 원림적 특징과 운포구곡시의 작품세계를 고구해 보기로 한다.

## II. 張緯恒의 儒家的 삶과 雲浦九曲의 경영

운포구곡은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을 지나가는 내성천에 있는 구곡으로 臥隱 張緯恒(1678~1747)이 1736년(영조 13)에 설정하여 경영한 구곡원림이다. 내성천은 영주시를 관통하는 西川과 대비하여 東川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천은 봉황산과 문수산의 물이 馬坪, 즉 '말바우들'에서 모여 봉화군 물곡면과 영주시 평은면을 거쳐 낙동강에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다. 내성천은 폭이 넓어 강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맑은 물이 쉽게 흐르며 굽이굽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룬다. 안타깝게도 영주댐이 건설되어 내성천의 많은 굽이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장위항은 자가 天應이고 호가 臥隱이다. 시조는 고려시대 직학사들이

지낸 桂이고, 8대조 末孫이 軍功으로 延福君에 봉해지고 관직이 禮曹參判에 이르면서 집안이 드러났다. 장위항은 자질이 영민하여 10여 세에 이미 經史를 다 읽었고, 당시 명망 있는 선비인 종재종조 錦江公과 孤山 李惟禔 등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부모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 합격하여 司憲府監察, 慈仁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효성이 지극해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형제, 친척들과 우애롭게 지냈는데 그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자인현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위항은 내성천에 운포구곡을 경영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고향에 돌아온 후, 살만한 집이 없어 마을 집을 빌려 한 해를 지냈다. 병진년(1736) 봄에 비로소 臥雲谷에 떠집을 지으니 고을 남쪽 30리에 있다. 산수가 매우 아름다워 忠義公이 일찍이 자리잡아 사셨는데 그 뒤에 喪禍로 다른 마을로 옮겼다. 공이 여기 옛터에다 새로 개축하고, 지명이 建陽의 雲谷과 같으며 沙川에 굽이진 곳 아홉 곳이 또한 武夷九曲과 닮았으므로 朱夫子의 「名堂室記」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거처하며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말을 취하여 그 집을 夙夜齋라 이름하였다. 또 「雲谷記」에 “性を 기르고 글을 읽는 일이 또한 즐거워서 죽음을 잊는다.”는 말을 취하여 그 집을 亦樂軒이라 이름하고 총괄하여 雲谷幽居라 불렀다. 이로 인해 「臥雲幽居記」를 짓고 또 朱夫자의 「雲谷詩」 38수 및 「九曲權歌」 절구 10수를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sup>3)</sup>

장위항은 벼슬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臥雲谷에 초가를 지으며 은거

3) “歸田後 無宅可居 借村家 過一歲 丙辰春 始誅茅于臥雲谷 在郡南三十里 山水絕勝 忠義公會卜居 其後 以喪禍 移他村 公 於是 因舊址 改新築 以地名同於建陽之雲谷 而沙川成曲者 九處 亦似武夷之九曲 取朱夫子名堂室記夙興夜處陟降在茲之語 名其齋曰夙夜 又取雲谷記 養性讀書亦足以樂而忘死之語 名其軒曰亦樂 而總名之曰 雲谷幽居 因作臥雲幽居記 又次朱夫子雲谷詩 凡三十八首 及九曲權歌十絕句” 『臥隱先生文集』 卷6 「附錄, 〈行狀〉

를 시작하였다. 와운곡의 지명이 주자가 은거했던 雲谷과 닮아서 그는 지은 집들의 이름을 주자의 글에서 취하였고, 주자의 「무이도가」를 차용하여 구곡시를 지었다. 은거지의 지명이 우연히 닮았을 수도 있지만 주자의 삶을 계승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살았던 주자의 삶을 흡모하여 자신의 삶의 공간에 이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후기 선비들의 삶을 장위항은 몸소 와운곡에서 실현하였던 것이다.

장위항은 봉황산과 문수산의 물이 합류하여 臥雲谷에 드는 것을 雲溪라 하였다.<sup>4)</sup> 그는 이 운계에 운포구곡을 설정한 이유를 문집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봉황산과 문수산의 물이 마평에서 처음 만나 서남으로 30리를 흘러 가서 운곡에 들어간다. 운곡 왼쪽 3,4리에 물이 산을 만나 굽은 곳이 4곳이니 芝浦曲, 東渚曲, 錦灘曲, 龜灣曲이고, 운곡 오른쪽 또한 3,4리에 물이 산을 만나 굽은 곳이 4곳이니 箭潭曲, 龍湫曲, 松沙曲, 愚川曲이다. 내가 사는 곳이 한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水籠巖을 마주하며 제5곡이 되니 이를 雲浦曲이라 한다.<sup>5)</sup>

장위항은 자신의 은거지를 중심으로 왼쪽 4곳과 오른쪽 4곳에 물이 굽이 도는 지점을 설정하고 자신의 거처를 포함해 아홉 굽이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은거지인 雲浦에서 이름을 취하여 운포구곡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곡원림 설정은 주자의 무이구곡 설정 방법과 일치한다. 주자는 무이산을 흘러가는 武夷溪에 무이구곡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은거지

4) “雲溪者 鳳凰文殊 兩山之水 合流而入谷者也”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并小序〉

5) “兩水 始遇於馬坪 西南流三十里而入谷 谷之左 三四里 而近水之遇山 而屈折者四 曰芝浦曲 曰東渚曲 曰錦灘曲 曰龜灣曲 谷之右 亦三四里 而近水之遇山 而屈折者四 曰箭潭曲 曰龍湫曲 曰松沙曲 曰愚川曲 幽居在正中 而前對水籠巖 爲第五中節 是謂雲浦曲”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并小序〉

인 武夷精舍를 제5곡으로 설정하였다.

그 좌우 굽이진 곳에는 모두 절벽과 천석이 아름답고 언덕과 임학이 기이하니 조물주가 처음 만들 때에 아마도 평범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리라. 합하여 九曲으로 이름하고 외람되게 朱夫子의 「武夷權歌」 운을 사용하여 각 굽이의 아름다운 경치를 기록하였는데 굽이의 차례는 夫子 시가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오르는 듯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한 愚川에서 시작하여 芝浦에서 마쳤다.<sup>6)</sup>

장위항은 운포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면서 무이구곡의 예를 그대로 따랐다. 운곡의 산수는 매우 아름다워 조물주가 처음 만들 때에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전제하여 운포구곡 설정의 당위성을 말하고, 무이구곡 차례를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오르며 구곡을 설정하고, 「무이도가」 운을 사용하여 운포구곡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지어 운포구곡 경영의 정당성을 말하였다. 장위항은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아홉 굽이를 설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물길을 따라서 역으로 내려오며 아홉 굽이를 시로 지어 읊었다.

내가 九曲權歌를 짓고 나니 詩客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晦菴 夫子의 九曲詩가 과연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오르며 이와 같이 차례를 배열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夫子의 九曲記와 權歌詩를 가지고 살펴보면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랐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九曲은 다만 물이 산을 만나 굽어, 기이한 경관을 만드는 것일 따름이고 진실로 폭포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없다. 또 사는 곳이 한가운데 자리한 굽이이고 왼쪽에 4곳, 오른쪽

6) “凡其左右屈折處 皆有崖壁泉石之勝 堆阜林壑之奇 造物者 融結之初 蓋非尋常設也 合以九曲名之 僭用朱夫子武夷權歌韻 以記其逐曲之勝 而其序次 則夫子詩 似從下派上 故此亦始於愚川 終於芝浦”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并小序〉

에 4곳이 굽이굽이 평평히 흐르며 거리가 같으니 물길을 따라서 權歌를 지어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객이 짓기를 재촉하여 마침내 다시 물길을 따라서 九歌를 지으니 芝浦에서 시작하여 愚川에서 마쳤다.<sup>7)</sup>

장위항은 詩客과 대화를 하면서 무이구곡은 물길을 거슬러 오르며 설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무이구곡을 방문할 수 없었던 당시에 「九曲記」와 權歌詩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며 아홉 굽이를 시로 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은거지가 운포구곡 한가운데 자리하고 그 왼쪽에 4곳, 오른쪽에 4곳이 굽이져 평평히 흐르고 거리가 같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며 굽이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운포구곡의 위치도

7) “余既爲九曲權歌 詩客有見者曰 子何以知晦菴夫子九曲詩 果爲從下派上 而排次若是 余曰 今以夫子九曲記及權歌詩考之 則其爲從下派上 十分明的 然今我之所謂九曲者 特是水遇山而屈曲成奇耳 固無懸流瀉瀑 從高落下者 且幽居 當正中一曲 而左四右四 曲曲平流 遠近正等 雖沿流作權歌 亦可矣 客促成之 遂更爲沿流九歌 始於芝浦 終於愚川” 『臥隱先生文集』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覆次〉

山盃酌酌坤靈 산속에서 잔을 들어 地靈에게 받치니  
 感此溪山特地清 이 시내 산들이 특별히 맑음을 느끼네  
 九曲新名眞僭竊 구곡의 새 이름 진실로 함부로 사용해  
 題詩聊學權歌聲 시를 지어 애오라지 뱃노래를 배우고저<sup>8)</sup>

장위항은 봉황산과 문수산에 지령이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와서 운포구곡의 시내와 산들이 특별히 맑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원두의 맑은 물이 운포의 아홉 굽이를 맑게 하여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청정한 기운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이곳에 구곡을 설정하며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하려 하니 외람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운포구곡을 설정한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곡시를 지어 도가 소리를 배우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주자가 무이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며 「무이도가」를 지었듯이 자신도 운포구곡을 설정하고 「운포구곡시」를 지어서 주자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려 하였다.

### Ⅲ. 雲浦九曲의 특징과 九曲詩의 세계

#### 1) 제 1곡 愚川曲

운포구곡 제1곡은 영주시 문수면 승문리에 위치한다. 達眉山을 관통하는 林道를 따라서 올라가면 멀리 내성천이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을 조망할 수 있는데 그 굽이도는 지점이 제1곡 愚川이다. 시내의 왼쪽은 야산이 자리하고 산 너머에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승문 마을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산과 산 사이에 계단식 논과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있

8)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序詩



다. 시내 오른쪽은 논과 밭이 펼쳐 있고 그 뒤에 야산이 솟아 있다. 운포에서 흘러오는 내성천의 맑은 물이 이 굽이에서 휘어돌아 흘러가니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내성천은 조금 아래 지점에서 영주 시내를 관통하며 흘러오는 西川을 만나 그 폭이 더욱 넓어진다. 장위항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愚川 鄭弼(1601~1663)이 세운 정자 터만 錦江에 있었다.

고 참봉 정척 공이 그 위에 정자를 지었는데 남은 터가 아직 금강 가에 있다. 선생에 대한 만시에 '문장은 천고의 업이고, 풍월은 한 시내의 정자이다'라고 한 것이 곧 이 정자이다.<sup>9)</sup>

정척은 조선 후기 학자로서 본관이 淸州이다. 자는 伸則이고 호는 愚川 또는 臥雲翁이다. 안동에서 출생하였는데 아버지는 예조참판에 증직된 士信이다. 광해군의 폭정을 비판하여 과거를 포기하고 글만 읽다가 1627(인조 5)년 진사가 되어서 참봉에 올랐다. 1636년 병자호란 직전에 「論時事言罪」를 지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였는데, 경상좌도의 병영 이진 등 7개 항의 시폐 개혁을 요구하고, 왕도정치를 시행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도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주창하였다. 청나라와 강화가 이루어지자 대명절의를 부르짖고 향리로 돌아가 愚川亭을 지어서 후진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一曲巖崖可繫船 일곡이라 바위 벼랑 배를 멜 수 있으니  
誰將愚字強名川 누가 우자로 시내를 억지로 이름하였나  
仙翁舊躅無尋處 선옹이 남기신 옛 자취 찾을 곳이 없고  
笙鶴時時降紫煙 생학들이 때때로 붉은 이내에 내리네<sup>10)</sup>

9) “故參奉鄭公弼 亭其上 遺址尙在錦江 先生挽詩 文章千古業 風月一溪亭者 卽此也”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一曲詩 註

10)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一曲詩

장위항은 제1곡 우천에 배를 메고 굽이를 바라보았다. 누가 ‘愚’ 자로 시대를 이룸하였는가 하면서 우천 정칙 선생을 생각하였다. 다른 글자로 시대를 이룸할 수 있었지만 굳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대를 이룸한 까닭을 곰곰이 되새겼다. 우천은 정칙이 살았던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장위항이 살고 싶은 삶의 표상일 수 있다. 그는 자인현감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벼슬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자연에 은거하려 하였는데 그 본보기가 우천 정칙의 삶이다. 그래서 운포구곡 제1곡을 우천으로 설정한 것이다.

## 2) 제 2곡 松沙曲

운포구곡 제2곡은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위치한다. 美林橋에서 내성천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시내가 한번 크게 굽이도는 데 이 지점이 제2곡 松沙이다. 이 굽이에 이르면 시내에는 모래가 넓게 펼쳐 있고, 둘러 있는 산에는 소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장위항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굽이를 松沙라고 명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위항이 남긴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달미산 북쪽 머리 아래에 있다. 산이 내려와서 평평한 들판이 되고 들판에는 푸른 소나무가 있으며 물가에는 깨끗한 모래가 있다.<sup>11)</sup>

현재 이 굽이는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장위항이 살았던 시대의 지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달미산 북쪽 아래에서 시내가 크게 한번 굽이 돌고, 산 아래 평평한 들판은 현재 ‘속세들’을 말한다. 물가에 깨끗한 모

11) “在達眉山 北首之下 降爲平原 原有蒼松 渚有明沙”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二曲詩 註

래는 지금도 그대로이다. 다만 들판에 있었다는 푸른 소나무는 찾을 수 없지만 산에 무성히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 옛날의 경관을 짐작하게 한다. 시내 왼편 戴眉山 아래에는 몇 채의 농가가 있는데 ‘속세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 시내 건너편에 용혈리로 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 산밭치 암석을 파괴하는 바람에 이 굽이의 경관이 훼손되어 아쉬울 따름이다.

二曲山從鶴駕峯 이곡이라 이 산이 학가봉에서 오니  
 峯前蒼翠歲寒容 봉우리 앞 푸른 빛은 세한의 모습이네  
 塵途遠近君休問 세상 길 멀고 가까운지 그대 묻지 마오  
 山幾回環水幾重 산이 몇 겹 둘러고 물이 몇 겹인가를<sup>12)</sup>

장위항은 제2곡 송사에 이르러 굽이를 바라보았다. 학가산에서 뻗어 나온 대미산 봉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를 보니 그 푸른 빛에서 차가운 날씨에도 변치 않는 歲寒의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작은 난관에도 쉽게 변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소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세상길이 멀고 가까운지 묻지를 말라’고 하였다. 이 말은 혼탁한 세상과는 다른 청정한 공간에 들어가려 하는 자신에게 한 말이다. 인욕으로 가득찬 세상과 단절하고 청정한 공간인 九曲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 펼쳐진 경관은 산이 여러 겹 둘러있고 물이 여러 겹 둘러있는 단혀 있는 공간인데 이는 속세와 깊이 단절된 세계를 의미한다.

12)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二曲詩

## 3) 제 3곡 龍湫曲

운포구곡 제3곡은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에 위치한다. 美林橋를 조금 지나 왼쪽으로 난 길로 들어서면 행정구역이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이다. 월전리에서 좁은 농로를 따라 약 300미터 정도 올라가면 시내에 큰 바위가 자리하고 바위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 이곳이 제3곡 龍湫이다. 제3곡은 특이하게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설정되어 있다. 배 모양을 한 바위가 있고 그 경관이 아름다워 운포구곡의 한 굽이로 설정한 듯하다. 이 바위에는 세숫대야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 굽이를 흐르는 시내는 내성천의 지천인데 수량이 많고 물이 맑다. 이곳에서 지금도 지역의 인사들이 1년에 한 차례 詩會를 열고 있다.

월전의 석간이 10리를 힘차게 흘러 층암에서 소리내며 떨어져 바위의 아래에 용추를 이루고 남은 물은 용강에 흘러든다. 옛날에 전하기를 용이 오른 곳이라 한다. 용추의 남쪽에는 용유령이 있다.<sup>13)</sup>

내성천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제1곡 우천을 흐르는 시내를 錦江이라 하고 제3곡 용추가 흘러드는 시내를 龍江이라 하였다. 그리고 운곡을 흐르는 시내를 雲溪라 하였다. 이처럼 내성천이 휘어돌며 흐르는 굽이마다 각각의 이름을 달리 한 것은 굽이마다 내성천이 가지는 형상이 달랐고 전설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 굽이에 흐르는 내성천을 용강이라 이름한 것은 용추의 전설이 강을 따라 흘러갔기 때문인 듯하다.

三曲巖窪斷似船 삼곡이라 바위 구덩 배처럼 깎여 있어  
龍騰壯迹幾千年 용이 오른 장한 자취 몇 천 년 되었나

13) “月田石潤 十里噴薄 吼落層巖 巖下成湫 餘水入于龍江 舊傳 龍起之處 湫南 亦有龍踰嶺”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三曲詩 註

若教神用今猶在 신이한 능력 지금도 발휘될 수 있다면  
涸轍生靈定見憐 곤경에 처한 사람 사랑 받게 되리라<sup>14)</sup>

장위항은 제3곡에 이르러 솟아 있는 바위와 그 아래 파인 못을 보았다. 용추 위로 솟아 있는 바위는 깎인 모양이 배와 닮았다. 그는 바위 아래 있는 연못을 바라보며 그 옛날 하늘로 올라간 용을 상상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몇 천 년 전에 승천한 용이 현재 이 연못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곤경에 처한 세상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혼탁한 세상을 단절하고 청정한 공간인 용추에 이르러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을 생각하는 와은의 모습에서 작은 고을 백성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스렸던 수령의 마음<sup>15)</sup>을 읽을 수 있다.

#### 4) 제 4곡 箭潭曲

운포구곡 제4곡은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위치한다. 제3곡 龍湫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 오른편에 바위 벼랑이 높이 솟은 굽이를 만나는데 이곳이 제4곡 箭潭이다. 전담 가에 솟아 있는 바위 벼랑은 杖屨峯이다. 시내 왼편에는 ‘살목들’이, 오른편에는 ‘늑점들’과 ‘밀들’이 펼쳐 있고 시내가 이 들관 사이를 가로질러 빠르게 흘러간

14)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三曲詩

15) “五月 赴任本縣新經 辛壬大荒札 民多流亡 公 一以撫摩安集爲心 靜而不擾 簡而不煩 有詩曰 邑以慈仁號 當官可顧名 慈民如子子 仁物欲生生 只恐行難力 何憂效不成 龍山常對案 無動亦無營 境內素多堤堰 民賴以灌溉 而免旱災 多不修治 出令堅築 有時 監董以廣水利 割俸祿以助民役 每朔望 鷄初鳴 行望闕禮 因至鄉校 謁文廟 招集儒生 獎勵學業 作勸諭文 導之以孝悌忠信 又欲行呂氏鄉約 酌參今古 爲節目 頒示各面 而因罷歸 不果行 縣衙 有木魅之妖 乘夜恣行 前此爲守者 不得安處 多移避他舍 公 作文禳之 卽止不復作 人皆異之” 『臥隱先生文集』 卷6 「附錄」, 〈行狀〉

다. 이 굽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鑰器를 만들던 마을이 있어서 마을의 이름이 鑰點이고 들 이름이 鑰點들이다. 따라서 장위항은 鑰點 마을을 지나 전담에 흘러드는 작은 실개천을 鑰溪라 이름하였다. 지금 이 굽이 위에는 영주댐을 건설하는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운포구곡 제4곡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다.

시냇물이 소잡 산밭치에서 곧바로 장구봉 벼랑 아래로 빠르게 흘러가니 마치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는 듯하기 때문에 전담이라 이름하였다. 남쪽에는 유계가 있는데 전담으로 흘러든다.<sup>16)</sup>

장위항은 이 굽이를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서 가듯이 빠르게 시냇물이 흘러간다는 뜻에서 箭潭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전담 이전에 존재했던 蘇岑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마도 제5곡 운포와 제4곡 전담 사이에 자리했던 야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는 댐 공사로 인하여 지형이 많이 변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四曲懸崖百尺巖 사곡이라 가파른 벼랑의 백 척 바위에  
風梳石髮影毵毵 바람이 돌머리 빗질하여 그림자 길게 드리우네  
箭入的中眞善喻 화살이 과녁에 드는 비유 정말 좋으니  
請君看取水趨潭 그대는 물이 못에 드는 모습 볼지어다<sup>17)</sup>

장위항은 제4곡 전담에 이르러 가장 먼저 높이 솟아 있는 바위 벼랑과 마주하였다. 돌 틈에 자라는 풀들이 사람의 머리털과 같이 바람에 휘

16) “水由蘇岑之趾 直趨杖屨峯 崖壁下 如箭入的 故名以箭潭 南有鑰溪 亦入潭中”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四曲詩 註

17)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四曲詩

날리고 바위의 그림자가 길게 전담에 드리웠다. 그는 눈을 낮춰 벼랑 아래 전담을 보았다.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듯 빠르게 시냇물이 못으로 흘러들었다. 장위항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였다. 끊임없이 흘러드는 맑은 물에 의해 전담은 그 안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맑은 못이 되었다. 쉬지 않고 받아들여 맑아지는 못을 통해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은 못처럼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쉽없이 노력을 하였는지 생각하였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이 못에 드는 모습을 보라고 말하였다.

#### 5) 제 5곡 雲浦曲

운포구곡 제5곡은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위치한다. 제4곡 箭潭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5곡 雲浦이다. 그런데 이 굽이는 현재 영주댐 건설로 파괴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바로 운곡 가운데 있다. 옛날에 북포라고 이름을 하였기 때문에 합하여 운포라고 일컬었다. 시내, 산, 숲, 골짜기의 경치는 이미 기사 중에 있다.<sup>18)</sup>

장위항은 제5곡 운포가 산과 시내, 숲과 골짜기가 어우러진 굽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굽이의 명칭을 雲谷과 옛 지명인 北浦를 절충하여 운포라 명명하였다. 이 굽이의 이름에서 장위항이 운포구곡을 설정하여 경영하려 했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운곡은 장위항이 은거하는 처소이고 동시에 주자가 은거했던 곳이기도 하다. 제5곡을 운곡이라 명명하기에는

18) “正在雲谷之中 而舊名北浦 故合稱雲浦 溪山林壑之勝 已在記事中” 『臥隱先生文集』 卷2 「詩」〈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五曲詩 註

외람되다 생각하여 옛 지명인 북포를 고려하여 운포라고 명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위항은 주자가 은거하며 살았던 삶과 정신을 추앙하면서 계승하고자 하였다.

五曲堂中地最深 오곡이라 당중은 지세 가장 깊은데  
 淸溪幾度到雲林 맑은 시내 몇 번이나 운림에 이르렀나  
 須看表裏江山勝 강산의 경치는 겉과 속을 보아야 하니  
 造物開張定有心 조물주 만들 때 정히 마음 두었으리<sup>19)</sup>

운포구곡 제5곡은 산이 빙 둘러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이 굽이에 들어서면 닫힌 공간이라 바깥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제5곡은 지세가 가장 깊다라고 표현한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포의 지세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은 굽이돌아 흘러가는 맑은 시내이고 둘러 있는 운곡의 숲이다. 장위항은 이 굽이에 집을 몇 채 지었는데 夙夜齋, 亦樂軒이다. 이 집에서 아침 저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5곡의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장위항은 강산의 경치는 겉과 속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겉으로 드러난 경치만을 보아서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드러냈다. 경치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의미는 조물주가 이 굽이를 만들 때 가졌던 마음이다.

#### 6) 제 6곡 龜灣曲

운포구곡 제6곡은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위치한다. 제5곡 雲浦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6곡 龜灣이다. 구만에는 중앙선 철로가 지

19)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五曲詩



나가고 그 동쪽에는 평은역이 자리한다. 구만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형이 거북이 모양이다. 평은역 앞 들판을 ‘구만이들’이라 하는 것을 보면 이곳이 구만곡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곳의 동북에 있으니 錦水가 북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꺾이는 곳이다. 남쪽으로 錦里를 마주하고 동쪽으로 芝浦와 통한다. 서쪽에는 嚴公浦가 있다.<sup>20)</sup>

장위항이 형용한 구만의 경관이 지금도 이 굽이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구만의 남쪽에는 금광2리의 錦里가 자리하고 구만에서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금광1리의 芝浦에 이른다. 이 굽이는 멀리서 바라봐야 그 진경을 볼 수 있다. 시내를 임하여 난 도로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금광교에 이르는데 금광교 위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제6곡 구만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금광교 남쪽에 펼쳐지는 落照는 또 다른 가경이다. 이 굽이에는 운포구곡과 관련된 유적이 있으니 금광2리 노인정 앞에 서있는 雲谷書院 유허비가 그것이다.

六曲回岑俯碧灣 육곡이라 두른 봉우리 벽만을 굽어보고  
東穿一逕若門關 동으로 난 한 작은 길은 관문과 같아라  
塗中曳尾眞吾樂 진흙 속에 꼬리 끄는 일 나의 진락이니  
元緒傳稱豈等閒 전해오는 거북의 이야기 괜히 하였으랴<sup>21)</sup>

장위항이 제6곡에 이르니 둘러 있는 봉우리가 푸른 물굽이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모양이 거북이 형상이라 물굽이 이름을 구만이라 하였다.

20) “在幽居之東北 錦水北流 而西折處也 南對錦里 東通芝浦 西有嚴公浦”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六曲詩 註

21)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六曲詩

장위항은 이 굽이의 이름에서 거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렸다. 『莊子』 「秋水」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죽은 지 3천 년 되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뼈를 楚나라 廟堂에 모셔 놓았는데, 장자가 이를 빗대어 “죽어서 뼈 다귀로 남아 귀하게 되려 하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흙탕물 속에 꼬리를 끌고 싶어 하겠는가?”<sup>22)</sup>라고 하였다. 죽어서 가지는 영화보다 살아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 좋다는 이야기다. 장위항은 세상에 나아가 영욕의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眞樂이라 생각하였다. 이 굽이가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고 보았다.

#### 7) 제 7곡 錦灘曲

운포구곡 제7곡은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에 위치한다. 제6곡 龜灣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2.5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한번 크게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7곡 錦灘이다. 금탄은 錦水 위에 있는 여울이다. 송리원교에서 바라보면 금수가 지르메재를 만나 크게 한번 굽이돌는데 그 맞은편에 가작골이 있다. 가작골에는 마을 주민들이 을 앞들에서 농사를 짓고, 지르메재 아래에는 몇몇 농가가 축사를 지어놓고 가축을 기른다. 이 굽이에 과거 장씨 70여 호가 살았는데 홍수로 인하여 살던 곳이 큰 피해를 입어 지금은 모두 떠났다고 한다. 근처에 王留라는 곳이 있는데 고려 恭愍王이 머문 곳이라고 한다.

송원 아래 흐르는 시내가 안산을 만나 굽어 꺾여 금수가 된다. 옛날에는 상탄이라 하였는데 곧 가촌 서쪽 머리이다. 여울 위에 푸른 벽이 높이 솟고 기이한 바위가 벌여 서서 마주하고 있다.<sup>23)</sup>

22)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莊子』 「秋水」

23) “松院下流 遇鞍山 而屈折爲錦水 舊稱上灘 卽佳村西頭也 灘上 蒼壁削立 奇巖列峙” 『臥

장위항의 기록을 살펴보면 지금의 지형과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금탄은 송리원 아래에 있는 여울인데 佳村[가작골]과 鞍山[지르메재] 사이를 시내가 크게 한번 굽이돌며 흘러간다. 이 굽이의 경관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내를 따라서 난 좁은 길을 가서 가작골 들만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여울 위에 솟아 있는 푸른 바위 벽을 볼 수 있고 기이한 바위가 벌여 서 있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七曲平川轉作灘 칠곡이라 평천이 빙 돌아 여울을 만드니  
西流俄作北流看 서쪽으로 흐르다 갑자기 북으로 흐르네  
清波可濯天孫錦 맑은 물결 직녀의 비단을 씻을 만하니  
願備瓊樓十日寒 경루에서 열흘 동안 지내기를 바라노라<sup>24)</sup>

장위항은 칠곡에 이르러 평천이 굽이돌며 여울을 이루는 굽이를 보았다. 시내가 이 굽이에서 서쪽으로 흐르다 갑자기 북으로 물결을 돌렸다. 북으로 구만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장위항은 그 맑은 물에 직녀가 짠 비단을 씻을 만하다고 여겼다. 금탄은 신선의 세상에나 있을 수 있는 청정한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는 신선의 세계에 있는 瓊樓에서 열흘 동안 지내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장위항이 신선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儒者인 그가 신선의 세계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선의 세계처럼 청정한 이 공간에서 자연을 관조하며 그 안에 내재하는 道를 체득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몰아일체의 경지에 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隱先生文集』卷2「詩」,〈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七曲詩 註  
24) 『臥隱先生文集』卷2「詩」,〈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七曲詩

## 8) 제 8곡 東渚曲

제7곡 錦灘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2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8곡 東渚이다. 이 굽이에는 동호교가 놓여 있고 시내 왼편에는 동호 마을이 자리한다. 시내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안동에 이를 수 있고, 동호리 맞은편 마을을 지나서 흘러오는 하천 물이 내성천에 흘러든다. 이 굽이에는 산이 앞으로 둘러 있고, 내성천 가에 ‘물섬들’ ‘두들’ 등의 들판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 굽이에서는 이전의 닫힌 공간과는 달리 열린 공간이 전개되려 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무이구곡의 공간 설정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내지와 외지가 있다. 동으로 영지동 입구를 마주하니 마을 물이 큰 내에 모여든다. 언덕 위에 관로가 있어 남으로 송원을 향하고 북으로 저현을 넘어간다.<sup>25)</sup>

동저는 內渚와 外渚가 있는데 내저에는 안동 김씨가, 외저에는 흥해 배씨가 대대로 살고 있다. 동쪽에는 영지산이 있는데 그 앞이 영지동의 입구이다. 언덕 위에 관로가 있다는 말은 동호 맞은편 마을을 지나서 안동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남으로 송원을 향한다는 말은 송리원으로, 북으로 저현을 넘어간다는 말은 지포로 가는 길을 뜻한다.

八曲芝山洞欲開 팔곡이라 지산의 동천이 열리려 하는데  
水侵沙岸共縈洄 시냇물이 모래 언덕에서 함께 굽이도네  
隔川試問長途客 시내 건너 먼 길 가는 길손에게 묻노니

25) “有內外渚 東對靈芝之洞口 澗水會于大川 岸上有官路 南向松院 北踰渚峴”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八曲詩 註

爲底茫茫去又來 무슨 일로 아득히 길을 가고 또 오는가<sup>26)</sup>

제8곡 동저는 운포구곡의 극처에 가까운 굽이이다. 그래서 장위항은 지산의 동천이 열리려 한다고 하였다. 지산은 지포를 말하는데 바로 운포구곡의 극처이다. 극처에 이르면 아름다운 경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눈 앞에 펼쳐진 경관은 시냇물이 모래 언덕을 굽이도는 일상의 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장위항은 이러한 경치에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치에 실망하고 먼 길을 떠나는 遊者에게 경계의 말을 하였다. 무슨 일로 먼 길을 가고 오는가 하고 물었다. 경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다운 가경은 평범한 경치에 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 9) 제 9곡 芝浦曲

운포구곡 제9곡은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에 위치한다. 제8곡 東瀆에서 물길을 따라서 약 1.8km 정도 거슬러 오르면 시내가 굽이도는 지점에 이르는데 이 굽이가 제9곡 芝浦이다. 이 굽이의 내성천에는 평은교가 놓여 있고 그 곁에 평은유원지가 있다. 내성천의 맑은 물이 이 지점에서 굽이 돌며 열린 경관을 만드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휴식을 취한다. 이 굽이는 靈芝山 지맥이 이 지점에 이르러 물을 먹는 형국이므로 ‘깊다’는 의미에서 마을의 이름을 ‘깊은실’이라 하는데 현재 평은면사무소 앞의 들이 ‘깊은실들’이다. 굽이 오른쪽 산등성에는 石門亭이 있고, 시내 안에 잉어바위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내성천의 물이 불면 잉어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하였다. 그리고 금광리 산 너머에 지산촌이

26)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八曲詩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을 찾을 수 없고 못의 이름이 ‘지산못’이라는 사실에서 지산촌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굽은 내에 흘러오는 물이 십 리를 평평히 흐르다가 동저산을 만나 굽이돈다. 포구 가에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심곡이었고 지금은 지포로 고치니 영지의 서쪽 포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뒤에 지산촌이 있다.<sup>27)</sup>

내성천 물결이 평평히 흘러오다 동저산을 만나면서 크게 굽이돈다. 그 지점에 모래가 널다랗게 펼쳐 있어 평평한 지형을 이룬다. 이 굽이가까이에 마을이 있는데 심곡[깊은실]이다. 이 심곡을 장위항이 지포로 고쳤는데 영지산 서쪽 포구가 되기 때문이다. 장위항이 살았던 시대의 지형과 지금의 지형은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심곡 뒤에 있었다고 하는 지산촌에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그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九曲洲平勢豁然 구곡이라 모래섬 평평해 지세가 열리니  
東來水折作南川 동에서 온 시냇물이 꺾여 남천이 되네  
芝歌一曲從何許 지초 노래 한 곡조 어디에서 들리는가  
聲在靈峯日午天 한낮에 영지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네<sup>28)</sup>

운포구곡 제9곡에 도착한 장위항의 눈에 평평한 모래섬이 들어왔다. 제8곡에서 열리기 시작한 지세가 지포에 이르러 완전히 열렸다. 동쪽에서 흘러오던 내성천이 이 굽이에서 꺾여 남쪽으로 흘러가니 별다른 경치

27) “屈川來水 十里平流 遇東渚山 而折轉 浦上有村 舊深谷 今改芝浦 以其爲靈芝之西浦也 背後 亦有芝山村”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九曲詩註

28) 『臥隱先生文集』 卷2 「詩」, 〈雲浦九曲謹次朱夫子武夷權歌韻〉 九曲詩

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저 멀리서 지초 노래 한 곡조가 들렸는데 그것은 한낮에 영지산에서 지초를 캐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영지를 캐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장위항은 이곳이 극처라는 사실을 알았다. 시내가 굽이돌고 모래섬이 펼쳐진 일상의 공간이었으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지를 캐면서 청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은 장위항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고 그가 지향하는 도가 존재하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들려오는 지초 노래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 IV. 맺음 말

臥隱 張緯恒은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 위에 雲浦九曲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운포구곡을 거슬러 오르면서 주자의 무이구곡도가의 운을 차운하여 구곡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운포구곡의 물결을 따라 내려오면서 또한 구곡시를 지었으며 우천 아래에 茂島七曲을 설정하여 경영하면서 주자의 武夷七詠의 운을 차운하여 茂島七曲詩를 창작하였다.

그는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운포구곡 설정의 기준과 방법을 밝히고 운포구곡의 특징이 폭포가 없으므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고 물결을 따라 내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곡부터 구곡까지 거슬러 오르면서 구곡시를 읊었고, 〈覆次〉라 하여 극처에서 물결을 따라 내려오면서 구곡시를 읊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운포구곡시를 두 가지로 읊었던 것이다. 이 두 편의 운포구곡시는 곡의 차례만 뒤바뀌었을 뿐, 곡명과 곡의 위치는 동일하였으며 노래의 시상이 조금 다를 뿐이다. 무도칠곡은 물돌이 섬인 현 문수면 水島里를 중심으로 조제리까지를 대상으로 설정한 구곡인데 지형 지세가 안동의 하회나 예

천 풍양의 회룡포처럼 생겨 氣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절승을 이루고 있는데 장위항은 이를 소재로 하여 칠곡시를 창작하였던 것이다.

장위항은 구곡 주위에 亭齋를 지으면서 그 명칭도 주자의 명당실기에서 취하였고 구곡과 칠곡을 경영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자의 삶을 계승코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기가 사는 곳에 5곡을 설정하는 등 구곡의 설정 방법과 범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편의 구곡시와 1편의 칠곡시를 창작한 것으로 볼 때 장위항은 무이 구곡과 무이구곡도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의 삶을 본받아 유학의 도를 궁행 실천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장위항은 운포구곡 제 1곡인 우천곡에서는 '어리석을 愚'자 호를 가진 鄭弼을 생각하고 정칙의 삶을 되새기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표상을 드러내었고 그러한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제 2곡 송사곡에서는 대미산의 소나무를 보고 세한의 기상을 느끼고 이런 청정한 공간, 즉 인욕으로 가득찬 세상을 단절하고 청정의 공간인 운포구곡에 은둔하려는 뜻을 드러내었다.

제 3곡 송추곡에서는 혼탁한 세상을 떠나 용이 승천했던 청정한 공간인 용추에서 고층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심정을 토로하였으며 제 4곡 전담곡에서는 맑은 물을 쉼 없이 받아들여 맑아지는 전담의 뜻을 통하여 자신을 비취보았다.

제 5곡 운포곡에서는 곡명을 주자의 운곡과 이곳의 옛 지명인 북포의 합성어인 '雲浦'라 하고 「明堂室記」와 「雲谷記」의 내용을 차용하여 '夙夜齋'와 '亦樂齋'라 명명한 점을 볼 때, 주자의 삶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 6곡 귀만곡에서는 세상에 나아가 영욕의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에 귀의하여 도학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심경을 토로 하였고, 제



7곡 금탄곡에서는 신선의 세계처럼 청정한 금탄곡과 같은 공간에서 자연을 관조하며 자연에 내재하는 도를 체득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였다.

제 8곡 동저곡에서는 8곡이 운포구곡의 극치인 지포가 가깝기 때문에 그 경관이 평범을 발견하고 참다운 가경은 평범한 경치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 9곡 지포곡에서는 영지산에 올라 지초를 캐는 마을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이들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자신이 지향하는 도, 즉 평상의 도를 발견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장위항은 치사한 후에 내성천 위에 운포구곡 원림과 무도칠곡 원림을 설정하고 3가지의 구곡시 창작을 통하여 주자의 삶을 영위하고자 했는데 특히 운포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지은 운포구곡시에서는 세속과 단절된 운포구곡의 청정 공간에서 자연에 귀의하여 도를 체득하고자 하는 심정을 托興寓意했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5-38쪽.
- 姜正瑞, “朝鮮後期の 武夷權歌 詩認識”, 東方漢文學 17, 동방한문학회, 1999. 19-30쪽.
- 권정은, “樓亭歌辭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205-230쪽.
-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경북사대, 1991. 35-86쪽.
-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2,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241-274쪽.
- 김문기,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退溪學과 韓國文化 43,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8. 193-233쪽.

- 金文基, “陶山九曲의 設定과 陶山九曲詩의 展開”, 退溪의 文學과 思想, 제22차 退溪學 國際學術會議, 國際退溪學會·嶺南退溪學研究院, 2009. 296-324쪽.
- 김문기, “高山七曲과 高山七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10. 213-239쪽.
-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319-346쪽.
- 유준영, ‘조선시대 九曲圖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97. 1-88쪽
- 윤진영, ‘朝鮮時代 九曲圖의 收容과 展開’, 미술사학연구 217, 한국미술사학회, 1998. 61-91쪽.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89. 15-38쪽.

Abstract

## A Study on Unpogugok(雲浦九曲) and Unpogugok Poem

Kim, Mun-Kie

Jang Wee-hang(張緯恒) clarified the standard and method of establishing Unpogugok(雲浦九曲) based on definite understanding about Zhuxi's Muwigugok(武夷九曲), recited Gugok poem(九曲詩) while going up to the ninth curve(第九曲) from the first curve(第一曲) because of being likely to ascend with taking a boat and to go down along the wave, owing to having no waterfall in the characteristic of Unpogugok, and ever recited Gugok poems while descending along the wave from the very end called <Bokcha(覆次)>. Two pieces of Unpogugok(雲浦九曲) poem were changed only sequence in a curve(曲), but were same in the title of a song and the position of a song, and are just a little different in a poetic concept of a song.

He constructed Jeongja and Jaesil(亭齋) around Gugok, took even its title from Zhuxi's Myeongdangsilgi(名堂實記), and managed Gugok and Chilgok(七曲). Thus, this can be said to be expression of his will to succeed to Zhuxi's life. Especially, he is not only suggesting definitely a method and scope of establishing Gugok such as establishing fifth curve in a place where he lives, but also created 2 pieces of Gugok poem and 1 piece of Chilgok poem. In light of this, Jang Wee-hang can be known to have aimed to live up to the morality of Confucianism by following an example of Zhuxi's life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about Muwigugok and Muwigugokdoga(武夷九曲權歌).

Ultimately, Jang Wee-hang aimed to establish Unpogugok and Mudochilgok(茂島七曲) on the Naeseong River stream after quitting the government post, and to manage life as Confucian scholar like Zhuxi through creating 3 kinds of Gugok poems. Especially, Unpogugok(雲浦九

曲) poem, which was composed with going up the Unpogugok is considered to have revealed a mental state of aiming to acquire morality by returning to nature in the pure space of Unpogugok, which was discontinued with the mundane world, with fabricating his mental state relying upon a joy of occurring with seeing the landscape of each curve.

Key Word

Unpogugok, Unpogugok Poem, Jang Wee-hang, Zhuxi, Muwigugok, Muwigugokdoga, Mudochilgok

▪ 논문투고일 : 2011.6.30 심사완료일 : 2011.7.27 게재결정일 : 2011.8.5